

1920년대 이광수의 신문연재 장편소설 연구

이 선 경*

요약

본 연구는 춘원 이광수의 1920년대 신문연재 장편소설에 주목한다. 이광수는 1920년대 『동아일보』를 통해 총 아홉 번 연재장편소설을 시도했으며 이 중 다섯 편을 완결했다. 이광수 장편소설의 거의 대부분이 신문에 연재되는 방식으로 창작되었지만, 1920년대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보다 주목을 요한다. 1920년 조선 민간이 발행한 신문들(『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이 최초로 출범했고, 이광수는 동아일보에서 기자와 편집국장으로서 근무하며 민족지의 매체적 관점에서 신문을 활용하게 되었다. 1920년대의 신문연재 방식을 통해 이광수는 장편소설의 양식적 안정화를 이루어냈고, 소설을 통해 일반에 공론을 확장하고 내러티브를 재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민족지 신문이라는 매체적 관점을 전제하고, 이광수의 1920년대 미완결된 연재 장편소설까지를 포함하여 그 통시적 과정을 살핀다.

1920년대 이광수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세 단계로 파악해 볼 수 있다. 2장의 분석 대상인 미완작들에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나'라는 1인칭 서술자가 등장한다. 소설가와 언론인으로서의 화자가 미분화된 양상을 보이는 이들 소설에서 식민지 조선의 소설이 담당하던 공론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1920년대 초중반에 완성된 세 편의 개작소설을 살핀다. 『허생전』, 『재생』, 『일설춘향전』에서는 당대의 진부하고 통속적인 내러티브를 다시 쓰는 과도기적 양상이 나타나는데, 세 편의 개작소설들은 신문 매체의 맥락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적 공감대를 확보한다. 그러나 소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자체의 자율적 동력에 대한 필요와 공적 주체의 자리에 대한 형상화가 요구되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역사소설을 등장하게 한다. 4장에서는 1920년대 후반에 발표된 두 편의 역사소설 『미의태자』와 『단종애사』를 다룬다. 비극적 국체(國體)를 재현하는 역사소설들은 『단종애사』에서 '실국-충의'의 플롯으로 양식적 안정화를 보여준다. 이는 신문의 독자들에게까지 공론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반복 확장되는 플롯의 하나가 되었다는 데에서, 식민지 조선의 망탈리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따라서 1920년대 이광수의 장편소설을 신문연재라는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살피는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이광수 문학 내부적 측면에서의 의의이다. 장편소설 창작의 시행착오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이광수가 역사소설을 선택하고 이어나간 과정의 필연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식민지 조선의 민족지를 통해 내러티브와 공론이 확산되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수에 기댄 바 있는, 실국과 충의를 구심점으로 하는 식민지 조선의 내러티브들에는 어떤 식으로든 역사적 허구를 빌려 비극적 국체를 논의하는 공통적인 망탈리테가 작용하고 있다. 이광수의 1920년대 창작 과정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본 연구는 그러한 식민지 조선적 내러티브의 구성과 내면을 알 수 있게 한다.

주제어: 이광수, 1920년대, 신문연재소설, 장편소설, 신문, 동아일보, 민족주의, 망탈리테

목차

1. 서론
2. 미분화 된 두 서술자, 소설가와 언론인
 - 미완작을 중심으로
3. 신문 매체의 맥락과 내러티브의 재구성
 - 개작소설을 중심으로
4. 민족주의적 망탈리테로서의 플롯 완성
 -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5.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1920년대 춘원 이광수의 장편소설 전개 과정을 신문연재소설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이광수는 1920년대 『동아일보』에 『선도자(先導者)』(1923.3.27.~7.17., 미완), 『허생전(許生傳)』(1923.12.1.~1924.3.21.), 『금십자가(金十字架)』(1924.3.22.~5.11., 미완), 『재생(再生)』(1924.11.19.~1925.9.28.), 『일설춘향전(一說春香傳)』(1925.9.30.~1926.1.2.), 『천안기(千眼記)』(1926.1.5.~3.6., 미완), 『마의태자(麻衣太子)』(1926.5.10.~1927.1.9.), 『유랑(流浪)』(1927.1.6.~1.31., 미완), 『단종애사(端宗哀史)』(1928.11.30.~1929.12.11.) 등 총 9편의 장편소설 연재를 시도하고 5편의 완성작을 남긴다. 이는 1920년대 『동아일보』의 신문연재소설이 구축하고자 한 정체성에 있어서나, 이광수 문학에서 1920년대의 장편소설이 가지는 의미에 있어서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이다.

1920년 민간에 의한 세 민족지 신문의 창간(『조선일보』(1920.3.5.), 『동아일보』(1920.4.1.), 『시사신문』(1920.4.1.))은, 1919년 3·1운동 이후 표면적으로라도 언론출판의 자율성을 보장한 일제의 문화정치로의 전환에 기인한다. 여전히 검열과 억압이 존재했지만 민족지 언론을 통해 달라진 조선 지식인들의 발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에 이광수는 동아일보사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1920년대 들어서는 처음으로 시도했던 장편소설 『선도자』를 연재하던 중인 1923년 5월 동아일보 촉탁기자로 입사하게 되고 같은 해 12월부터는 논설기자로써 활동한다. 이듬해 4월에는 논설 『민족적 경륜』(『동아일보』 1924.1.2.~1.6)이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게 되지만, 1926년 11월 다시 편집국장으로 돌아와 1927년 9월 폐병으로 사임하기까지 일 년여 간 활동한다. 그리고 회복 이후인 1929년 12월 재차 편집국장

으로 취임하여 1933년 8월까지 재직한다. 후에 1920년대 중반을 논설, 사설, 소설, 횡설수설까지 “신문의 사설(四說)이 내 손으로 되던 때”¹⁾2) 라고 회상하기도 했듯, 이 시기 이광수의 정체성과 소설 창작은 신문이라는 매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첫 장편소설인 『무정(無情)』(『매일신보』, 1917.1.1.~6.14)을 포함하여 이광수의 장편소설 거의 대부분이 신문연재를 통해 창작되기는 했지만, 민족지 언론인으로서 그 매체적 조건을 의식하며 집필된 1920년대의 연재장편소설은 이후 식민지 조선 장편소설의 하나의 전형이 된다. 이와 더불어 1920년대 이광수의 행보에 있어서 소설 창작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광수는 1919년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서’ 작성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지만, 1921년 3월 돌연 조선으로 귀국하고 고도 식민 정부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기에 귀국 후 발표한 논설 『민족개조론』(『개벽』 제23호, 1922.5), 『민족적 경륜』(『동아일보』 1924.1.2.~1.6)이 조선 민족의 비난과 매도를 받았음에도 이광수는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해갔다. 이러한 시기 창작된 소설은 이전 시기와 같을 수 없었으며, 1920년대 내내 꾸준히 이어간 신문연재 장편소설에서의 다양한 내용과 장르와 형식의 시도는 장편소설 양식 자체에 대한 고민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선도자』의 미완에서부터 『단종애사』의 양식적 안정성에 이르기까지의 시행착오와, 이후 식민지 조선 문학으로의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그 통시적 과정의 내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까지 1920년대 이광수의 장편소설에 대해서는 완결된 각 작품이나 비슷한 유형의 작품군들을 중심으로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³⁾ 그러나 미완작을 포함하여 1920년대의 장편소설들 전체

1) 『「端宗哀史」와 「有情」-이력저력 二十年間에 十餘篇을』, 『삼천리』 1940.10. (『이광수전집』 10권, 우신사, 1979, 541면)

2) 본 논문에서 참고하는 이광수의 텍스트는 1979년 우신사 간행의 『李光秀全集』(전 11권)이며, 이후 ‘전집’과 그 권으로 표기한다.

를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시도는 없었다. 또한 신문연재소설 창작의 관점에서 이광수의 1920년대에 접근한 시도도 거의 없었다.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사적(史的)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이광수의 1920년대 장편소설이 다루어진 경우는 있다. 1880년대부터 1999년까지의 한국 신문연재소설의 역사를 개괄한 한원영의 연구에서 이광수의 『단종애사』는 홍명희의 『林巨正傳』과 더불어 192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대표적 작품으로 거론된다.⁴⁾ 한편 신문연재 역사소설 장르의 구축 과정을 살피는 김병길의 연구에서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의 역사소설 장르 탄생에 기여한 작가로 평가된다. 작가 스스로 사실에 기반 한 일차 자료의 수용을 역사소설로 규정하는 근대적 기준을 선취하여 『許生傳』과 『嘉實』을 역사소설로 명명했으며, 역사의 총체성을 재현해야 한다는 기준까지 포함한다면 『마의태자』를 신문연재 역사소설의 남상(濫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⁵⁾ 한편 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의 근대성과 연애담론을 살핀 임주탁과 최미진의 연구에서도 이광수가 등장한다.⁶⁾ 도산 안창호를 모델로 한 이광수의 『선도자』가 연재 중단을 당함으로써 더 이상 민족국가적 열망을 문학 담론에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이 염상섭이나 나도향의 소설 등이 보여주는 연애담론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1920년대의 신문연재소설 특히 이광수의 신문연

-
- 3) 이러한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본문의 각 맥락에서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기로 한다.
 - 4) 물론 이 저서에서 1917년의 『무정』은 『매일신보』의 독무대였던 1910년대의 신문연재소설을 대표한다. (한원영, 『한국 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 1, 푸른사상, 2010)
 - 5) 김병길, 『역사소설, 자미(滋味)에 빠지다 : 새로 쓰는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계보학』, 삼인, 2011
 - 6) 최미진, 임주탁,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 - 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4집, 2006; 임주탁, 『1920년대 초반 소설의 근대적 특성 연구 -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2006

재소설은 여타 작가들이나 신문연재소설의 전성기였던 1930년대의 기원적 지점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1920년대에 이광수가 신문연재 장편소설을 통해 그 단초로서의 지점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시행착오의 과정에 주목할 때에 1920년대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의의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신문연재소설의 유형 자체에 대한 연구들이다. 1930년대부터 윤백남, 김기진, 김남천 등에 의해 신문연재소설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있었다. 또한 해방기와 전후의 신문연재소설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아 주요 작품들 위주의 유형 분석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후 축적된 신문연재소설들에 대한 사적 접근을 바탕으로 통시성을 넘어서는 보편적 유형화 작업이 시도되고 있다.⁷⁾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본 연구는, 1920년대 『동아일보』 지면에 발표된 이광수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통시성에 주목하면서, 최종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민족문학으로서 이광수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⁸⁾ 1923년 『선도자』의 연재 중단

7) 대표적으로 대중문학연구회의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국학자료원, 1996)에 수록된 논문들을 들 수 있다. 이 중 임성래의 논의(『신문소설의 입장에서 본 〈혈의 누〉』)에서는 신문소설의 특징을 시의성 중시, 완성된 이미지와 상투성의 사용, 줄거리 전개 중시, 단절기법, 구독자 취향이라는 배포 조건, 독자 참여의 여섯 가지로 정리한다. 또한 아사이 키요시의 번역 논문(『소오세키와 신문소설』)은 일본의 메이지 시기부터 시작되어 온 신문연재소설의 유형과 논의들을 제시함으로써 본 논문에 참조점을 준다. 한편, 대중문학의 한 유형으로 신문연재소설의 사적 발전을 규명하는 연구에도 주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김창식의 『신문소설의 대중성과 즐거움의 정체』(『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에서는 평균인의 문학으로서 신문소설의 대중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당대의 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점, 독자에게 친숙한 문학적 도식(formula)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점, 독자에게 환상과 위안을 제공한다는 점, 성공한 신문소설에는 대중의 집단적 경험이 연관된다는 점, 대중의 사회적 정체성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8) 본 연구는 1920년대적 특성에 보다 집중하기 위하여, 1910년대나 1930년대 이후 이광수의 신문연재 장편소설과의 연속성이나 일반적 공통점에 대한 논의는 최소화 한다.

으로부터 1929년 『단종애사』에서 안정화 된 플롯을 구축하기까지, 이광수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발전 정도와 통시성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선도자』, 『금십자가』, 『천안기』, 『유랑』 등의 미완성 소설들이 그 초기적 단계이며, 『허생전』, 『재생』, 『일설춘향전』 등 일련의 개작소설들이 과도기적 단계이며, 역사소설 『마의태자』와 『단종애사』를 최종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각 단계를 각 장에서 살피기로 한다.

2. 미분화 된 두 서술자, 소설가와 언론인 - 미완작을 중심으로

이광수는 1920년대 『동아일보』를 통해 총 9번의 장편소설 연재를 시도하지만 완성작은 『허생전(許生傳)』(1923.12.1.~1924.3. 21.), 『재생(再生)』(1924.11.19.~1925.9.28.), 『일설춘향전(一說春香傳)』(1925.9.30.~1926.1.2.), 『마의태자(麻衣太子)』(1926.5.10.~1927.1.9.), 『단종애사(端宗哀史)』(1928.11. 30~1929.12.11.)의 5편에 불과하다. 나머지 4편의 미완작들은 총독부의 검열에 의해 연재가 중단되거나 이광수의 투병으로 완결되지 못했다. 완결작들의 경우에도 중단과 속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었다.⁹⁾ 그러나 미완작들에는 외부적 상황 이외에도 내러티브를 완결하지 못한 내부적 요인들이 존재한

9) 『재생』(1925년 3월 12일자 120회에서 중단, 당해 7월 1일에 재개)이나 『단종애사』(1929년 3월 7일 중단 예고, 당월 27일 재개, 당해 5월 11일~8월 20일 중단)와 같은 소설은 이광수의 발병으로 몇 차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결되었다. (소설 연재 중단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정진석, 『언론인 춘원 이광수』, 기파랑, 2017, 181-182면 참고) 이들과 비교하면 미완으로 끝난 소설들에는 『선도자』가 수십 년 후 『도산 안창호』(1947)가 된 것처럼, 다시 고쳐 쓰거나 아예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내부적·구성적 미흡함이 존재하는 것이다.

다. 이에 1920년대 초중반 시기에 나타났던 4편의 미완작 『선도자(先導者)』(1923.3. 27.~7.17.), 『금십자가(金十字架)』(1924.3. 22.~5.11.), 『천안기(千眼記)』(1926.1.5.~3.6.), 『유랑(流浪)』(1927. 1.6.~1.31.)을 통해 이광수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에서의 시행착오 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1920년대 초중반의 미완성 소설들에는 공통되는 서술적 특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소설의 핵심적 내용이나 사건을 전달하는 1인칭 서술자 ‘나’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창작에 있어서 자전적 사실들이나 작가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광수 소설의 특징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3인칭으로 객관화 되어 있다. 『무정』(1917)으로 대표될 수 있는 1910년대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에는 민족 지사 이광수의 목소리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인공 이형식의 이야기를 논설투 혹은 연설투의 어조를 통해 계몽적 태도로 전달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성격이 더욱 교조적으로 드러나는 『개척자』(『매일신보』, 1917.11.10.~1918.3.15.)에서도 “제군”라는 호명으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정도이다.¹⁰⁾ 이에 비하여 1920년대 미완작들에 등장하는 서술자 ‘나’가 특이한 것은, 이광수의 목소리임은 확실하되 자전적 성향은 거의 드러내지 않는 1인칭 관찰자 혹은 전달자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미완작들 각각에 나타난 대표적인 경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나는 재미있는 소설을 짓노라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

- 10) “우리는 현재를 볼 때에 슬퍼하고 실망하기 쉽지만은 희망의 눈으로 미래를 볼 때에야 비로소 더 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닫는 것이다. …(중략)… 새 서울의 모양을 **제군은** 마음대로 그려 보는 것이 좋다. 혹은 황금이 넘치는 부(富)한 서울이든지, 학술이 은성(殷盛)하고 문학 예술이 꽃을 피우는 문화의 서울이든지”(강조, 밑줄: 인용자)

- 『개척자』(전집 1권, 256면)

요, 상항(桑港)에서 불행히, 진실로 불행히 돌아가신 우리 민족의 선도자 이항목 선생을 조상하는 뜻으로 그의 가룩한 인격의 한끝만이라도 사랑하는 동포에게 전할 양으로, 오직 내 정성껏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도 그러한 생각으로 이 맛없는 글을 보아 주셔야 할 것이다.”

“나는 어찌하면 이 선인의 귀한 노력과 민족적 운동의 성공과 실패의 여러 가지 아프고 눈물 나고 장하고 애타고 존귀한 매력을 사랑하는 아우와 누이들에게 들려 줄까? 청컨대 내 이야기를 들으라!” (강조, 밑줄: 인용자)

- 『선도자』 (전집 3권, 557, 569면)

②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도 무슨 인연이었다. 내가 그렇게 안 돌아다녔던들 그 노인을 만나지도 못하였을 것이요, 그 노인을 못 만났던들 지금 여러분께 말하려는 이 슬프고도 어여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과연 모두 다 인연이다.” (강조, 밑줄: 인용자)

- 『금십자가』 (전집 7권, 160면)

③

“나는 편리를 위하여 파리가 자기 본 것을 직접 기록하는 모양으로 기록하려 한다.”

“나는 파리의 첫번 보고에 깊은 흥미를 가질뿐더러 또 파리의 관찰력과 묘사력(描寫力)을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잘 묘사하는 힘이 있을뿐더러 매우 유우며(諧謔)의 맛이 있다. 대단히 좋은 동무를 얻었다.” (강조, 밑줄: 인용자)

- 『천안기』 (전집 7권, 293, 296면)

④

“뱃길이 끊이면 우리 두 남매는 아주 도망할 길을 잃어 버리고 …(중략)… 돌아가신 형님 모양으로, 평양 경찰부로, 검사국으로, 재판소로 끌려다니다가 감옥 구석에 들어가지 아니하

면 아니된다. 나는 사내요, 몸도 건강하니까, 그 고초도 견디려
 나와 몸에 병이 있는 누이는 감옥까지 채 가지 못하고 죽어 버
 릴 것이다. …(중략)… 누이와 나와는 경관을 쓴 죄인이다.”

(강조, 밑줄: 인용자)

- 『유랑』 (전집 7권, 485, 490면)

① 첫 번째에 제시된 『선도자』는 이광수가 1920년대 들어 최초로 시도한 신문연재 장편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항목은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鎬)를 모델로 한다.¹¹⁾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난 후 상해에서의 도피생활 중 이광수는 도산을 만나 아버지처럼 따랐고 이후에도 평생 그 사상을 실천하려 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한국 근대 초기의 민족 독립과 자주에 관한 사실들-독립협회 운동, 신민회 조직,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 등이 별다른 여과 없이 제시되며, 이로 인해 총독부의 중단 명령을 받아 연재가 중지된다. 이에 더하여 『선도자』가 집필된 1923년은 바로 전해 발표되었던 『민족개조론』(『개벽』 제23호, 1922.5)의 여과가 여전히 남아있던 때로, 이광수는 후에 이 당시를 가장 비난을 많이 받았던 시기로 회고한다.¹²⁾ 총독부 검열로부터의 압박과 연재 중단,

11) “나는 朝鮮 사람 중에 두 사람을 崇拜합니다. 하나는 옛 사람으로 李舜臣이요, 하나는 이제 사람으로 安島山입니다. 나는 七, 八年 前에 先導者라는 小説을 쓰다가 말았거니와, 그 主人公이 安島山인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 (강조, 밑줄: 인용자)

- 『〈李舜臣〉과 〈安島山〉』, 『삼천리』 1931.7. (전집 10권, 512면)

12) “그동안 나는 독자로부터 과분한 激讚을 수없이 받기도 했지만 욕 먹어 보기는 ‘민족개조론’을 썼을 때와 ‘선도자’를 썼을 때인데, 中樞院參議一同이 連名해서 “들은즉 李光秀란 놈이 어려서부터 아버 없는 놈이어서 兩班階級을 허는 글을 쓴다.”고 總督府堂局과 京城日報社 社長에게 今後 李光秀의 글을 실리지 말라는 陳情書와, 經學院에선 反對講演會, 東京에서도 李光秀埋葬 演說會 가 있었으며, 京城官立學校의 呂圭亨先生은 學生들에게 李光秀의 글을 絶對로 읽지 말라고 宣言까지 했다.” (강조, 밑줄: 인용자)

- 『「단종애사」와 「유정」-이력저력 이십년간에 십여편을』, 『삼천리』 1940년 10월호 (전집 10권, 541면)

조선민족으로부터의 비난과 매도라는 양편에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집필된 『선도자』에서 당시 이광수의 장편소설을 통한 목표와 의도를 알 수 있다. 그것은 1인칭 서술자 ‘나’의 어조와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드러난다. “민족적 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전달하기 위해 소설을 창작한다고 말하는 ‘나’는 독자에게 “청컨대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강력하게 명령한다. 소설이 진행될수록 그 목소리가 더 강해지며 때로는 독자를 향해 분개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서술자 ‘나’에게는 이광수의 잔영이 짙게 드리워져있다. 그리고 이때의 이광수는 신문으로 매체를 옮긴 『민족개조론』의 논객 이광수이다.¹³⁾ 그래서 『선도자』는 소설 집필 전 이광수가 발표했던 논설들의 선취에 기대고 있고, 소설의 내러티브는 자율적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¹⁴⁾ 따라서 『선도자』는 소설의 형태를 빌린 논설이나 사설에 가깝다. “나는 재미있는 소설을 짓노라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요”

13) 『선도자』 50회를 연재하던 중인 1923년 5월 16일에는 ‘축탁기자’로 발령받아 동아일보에 정식으로 입사하게 되고, 이 시기의 이광수를 정진석은 “논객 소설가”로 명명한다. (정진석, 『언론인 춘원 이광수』, 기파랑, 2017, 147, 164면)

14) 대표적인 몇 장면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선도자』에서 고종 황제가 새롭게 일어나는 독립협회의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근거는 “이씨 오백년이라는 정감록의 예언”(『선도자』, 전집 3권 540면)인데, 이는 1921년 발표된 논설 「팔자설을 기초로 한 조선인의 인생관」(『개벽』 제 14호, 1921.8)에서 조선 민중뿐만 아니라 양반, 나아가 대원군까지 「정감록(鄭鑑錄)」을 경전으로 신앙처럼 여기는 것을 비판하는 부분과 일치한다.

2) 『선도자』에서는 신진 개혁 세력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몇 개 안 되는 선도자 자기네도 분명히 민족을 끌고나갈 방향을 모르”(『선도자』, 전집 3권 558면)는 데에서이다. 1920년대에 들어 이광수는 조선을 새롭게 끌고나갈 중추계급이 부재함을 지적하고(『중추계급과 사회』(『개벽』 제13호, 1921.7)), 새로운 단체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천명하는데, 논란이 되었던 「민족개조론」의 주장 역시 이를 포함한다.

3) 그리하여 『선도자』에서는 귀감이 될 만한 단체 백령회가 조직된다. 백령회 조직 장면과 이에 대한 설명은 단체의 강령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소설적 서술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백령회의 강령과 규칙들은 「민족개조론」(『개벽』 제 23호, 1922.5)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改造의 內容’ 챕터와 거의 일치한다.

라며 기획의도를 밝히며 시작하는 『선도자』의 ‘나’, 그리고 논객 이광수는 도산 안창호와 그의 준비론 사상을 말하는 과정에서 소설적 허구화의 형식과 충돌하는 것이다. 이십여 년 후 집필된 『도산 안창호』(1947)가 아예 3인칭의 시점에서 전기 장르로 개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② 두 번째에 제시된 『금십자가』에서의 ‘나’는 본격적인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는 액자소설의 1인칭 서술자와 닮았다. 우연히 늦은 밤 북한산 깊은 곳의 기와집에 머무르게 된 서술자 ‘나’가, 그곳에 육십여 년 간 은둔해 살던 천주교 신자 노인의 이야기를 일종의 액자식 구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다. 연재 직전의 『소설예고』를 통해서 “의기잇는 남아”의 이야기가 펼쳐질 것임을 드러냈으며¹⁵⁾, 아마도 병인박해(丙寅迫害) 사건을 전개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이 소설은 개인성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많다.¹⁶⁾ 그럼에도 이광수는 이 소설이 미완으로 끝난 이후 시작된 『재생』을 예고하면서도 여전히 『금십자가』에 대한 미련을 보인다.¹⁷⁾ 1920년대 초반 이광수는 종종 천주교, 천도교 등의 근대적 종교를 창작의 소재로 삼았는데¹⁸⁾, 근대적 종교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의 개인적,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의기 잇는’ 이야기의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

15) 『新小說豫告 - 金十字架』, 『동아일보』 1924.3.21.

16) 19세기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덕혜옹주가 등장하기도 하며, 제주도에서 귀양 중이던 선비가 일련의 사건에 휘말려 도망쳤음에도 그의 아들은 과거 시험 후 벼슬에 복귀하는 등 구성상의 문제점을 빈번히 보이는 것이다.

17) “나는 『先導者』를 중편까지만 쓰다가 경무국의 불인가로 중지하고 『金十字架』를 쓰다가 사정으로 중지하였다. 『金十字架』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再生』을 쓰기로 하였다. 그것이 쓰고 십기 때문이다.”
- 『小說豫告 - 再生』, 『동아일보』 1924.11.8.

18) 1막 2장에서 미완으로 끝난 희곡 『순교자(殉教者)』(1920) 역시 천주교 박해 사건을 다루며, 단편소설 『거룩한 죽음』(『개벽』 제34호, 1923.3.)은 천도교 박해 사건을 다룬다. 두 작품 모두 박해의 상황에 굴하지 않는 ‘의(義)’의 가치를 주제로 한다.

이다. 이광수가 『금십자가』를 통해 구현하려던 “의(義)있는” 이야기, 근대적 종교에서 발견한 ‘의(義)’의 가치는, 『선도자』에서 그 내용이 이미 본격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선도자』의 상편에서 주인공 이항목이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찾아내는 근대적 가치체계로서의 ‘의’의 덕목은 소설 전반에 걸쳐서 그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의(義) 사모하기를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뜻이 이루어질 것이요.”, “의(義)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너희는 오직 그 나라와 그의 (義)를 구하라.” 등 성경에 나타나는 ‘의’는 근대 개인의 자기수양과 인격도야의 기준이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금십자가』는 이를 본격적으로 구현하려던 소설이며¹⁹⁾, 『선도자』의 성경의 구절은 이후 『재생』에서도 당대의 올바른 가치 기준이 된다.²⁰⁾

- 19) 프랑스 신부의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의 고난과 희생, ‘의’의 가치는 주인공 노인 ‘충직(세례명 피엘)’에게 주인집 아들 승학으로 대표되는 양반이나 억울한 옥살이로 반증되는 부당한 권력과 싸우는 힘을 준다.

“피엘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승학이를 용서하고 미워하는 맘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승학이를 위하여 네가 암말 말고 이 죄를 저라. 남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은 가장 거룩한 일이다.”

…(중략)… (우리 주 예수께서는 깨끗한 몸으로 천하 만민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피엘은 자기도 승학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하였다.

- 『금십자가』, (전집 7권, 381면)

- 20) 선교사인 P부인과 여학교 동창인 인순은 타락한 순영의 양심을 일깨우며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발휘할 것을 강조한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의’의 의무인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타락한 순영을 일깨우는 인순의 조언에 나타나는 마태복음의 구절이다.

(순영의 말)“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예요?”

(인순의 말)“남을 행복되게 하도록 힘쓰는 것이지. 말하자면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

“사람의 일생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이광수가 근대적 종교로부터 찾아내는 ‘의(義)’의 가치는 1920년대 이광수가 소설을 통해 구현해내려던 가치이며, 이는 후반기의 역사소설 『마의태자』와 『단종애사』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의’의 질서는 『금십자가』의 1인칭 서술자 ‘나’를 통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한다. 『금십자가』의 미완결성을 이어받은 『재생』의 완결적 시점에서 추론한다면, 근 과거의 호출만으로는 ‘의’의 당대적 필요성을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십자가』를 속간하려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소설 내부적 사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1인칭 서술자 ‘나’는 다시 한 번 당대의 세태로 눈을 돌리게 되고, 그것이 세 번째 예문인 『천안기』이다.

③ 『천안기』는 「민족적 경륜」이 물의를 일으켜 잠시 편집국장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한 직후의 미완작이다. 운문 형식으로 작성된 「작자의 말」에서부터, 파리에 이입된 1인칭의 시점으로 다양한 인간 세태를 가감없이 다루겠다는 목표가 세워진다.²¹⁾ 이러한 복합적 시점의 설정은 소설의 전반부에는 성공적이다. ‘나’의 고향 마을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입부에서는 ‘날것으로서의 세태 - 관찰자 파리 - 양자를 조율하는 1인칭 서술자’라는 세 층위가 균형감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로 공간이 이동되고 1인칭 서술자가 신문에 취직하여 직접 세태를 관찰하게 되는 중반 이후부터, 파리의 시선은 사라지고 서사는 ‘날것으로서의 세태 - 1인칭 서술

의를 할 뿐이지 - 그러니까 오빠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려구나.” (편집: 인용자)

- 『재생』, (전집 2권, 127, 137면)

21) “내 몸이 파리 되어 / 삼천리 두루 돌아 / 큰 사람 작은 사람 / 착한 사람 악한 사람 /

...(중략)... 이리 찾고 저리 찾아 / 한 이야기 지어 볼까 /

설은 대목 있거들랑 / 부디 울기 잊지 말고 / 우순 대목 만나거든 / 마음 놓고 웃어 주고 /

...(중략)...어즈버 / 새해 된다 하니 / 새 이야기할까나”

- 「千眼記 作者의 말」, 『동아일보』 1926.1.2.

자의 관찰'로 이원적으로 축소된다. 그리고 '나'의 시선을 통해 전달되는 신문사 내부의 시스템과 세태 묘사는 경험자만이 가능한 편집자적 조망의 시선이기에, 여기서 당시 동아일보사 편집국장 이광수의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지점에서 미완작들에 공통되는 1인칭 서술자 '나'의 불분명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이광수가 '소설'적 내러티브의 서술자 1인칭 '나'의 자리에, 동아일보의 '논설, 사설, 횡설수설'을 담당하던²²⁾ 기자이자 논객이자 편집자로서의 '나'를 개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20년대 이광수의 신문연재소설에는 두 개의 1인칭 서술자가 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구적 개연성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소설의 서술자'와 사실적이며 논리적이며 때로는 강한 주장을 피력해야 하는 '언론의 서술자'이다. 이 둘이 완전히 분화되거나 역할 분담을 하지 못한 것이 1920년대 초중반의 미완성 작품들에 나타나는 시행착오인 것이다. 이처럼 '소설의 서술자'와 '언론의 서술자'가 아직 미분화된 양상은 비단 이광수의 일만은 아니었다. 당시 '모델소설' 논쟁이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광수가 『선도자』의 금지 처분으로 연재를 중단하고 다시 『허생전』(1923.12.1.~1924.3.21.)으로 『동아일보』에 창작을 재개하기 전까지, 그 자리를 메운 것은 염상섭의 두 연재장편소설 『해바라기』(1923.7.18.~8.26.)와 『너희들은 무엇을 어뎅느냐』(1923.8.27.~1924.2.5.)이다. 『해바라기』는 나혜석을, 『너희들은 무엇을 어뎅느냐』는 김일엽, 최승구, 김명순을 모델로 한다. 1930년의 『三千里』 初夏號에는 '내 小說과 모델'이라는 기획으로 이광수, 염상섭, 현진건 등의 글이 실린다. 특히 여기서 이광수와 염상섭은 1920년

22) "그 時節엔 내가 東亞日報社 編輯局長의 자리에 있어서 社說, 小說 甚至於 橫說 豎說까지 말하자면 신문의 四說이 모두 내 손으로 되던 때였다."

- 『「端宗哀史」와 「有情」-이력저력 二十年間에 十餘篇을』, 『삼천리』 1940.10. (전집 10권, 541면)

대 초반 동아일보에 연재한 신문 장편소설에 대해 회고하며 소설의 실제 모델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광수는 “나는 小説을 쓸때에 이세상서 이미 이러한 사실을 取扱하기를 애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1920년대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인 『선도자』와 『단종애사』에 대해서는 사실(事實/史實)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²³⁾ 이로부터 1920년대 신문연재 장편소설에 사실성에 기반 한 서술자, 신문을 다루는 언론인으로서의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더욱 확정하는 것이 마지막 미완작 『유랑』이다.

④ 네 번째 예문인 미완작 『유랑』은 『마의태자』와 『단종애사』 사이에 단 16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일본 순사를 권총으로 쏘고 도피 중인 오누이의 이야기를 그리는 소설인데, 여기서는 이전의 미완작들과는 달리 1인칭 주인공 화자가 등장한다. 오빠인 ‘나’의 시선에서 조선을 떠나 상해에 도착하기까지의 우여곡절이 펼쳐지며 향후 본격적인 모험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짧은 연재이지만 소설 연재 직전의 예고를 통해, 이 소설에서 이광수가 사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에서 『유랑』을 창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소설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사실적이며, 사실이라기에는 허구에 가까울 만큼 파란만장한 이야기라는 것이 연재 직전의 예고이다. 그러면서 마무

23) “정직하게 告白한다면 내가 實在의 人物과 事件 그대로를 取扱하여본 것은 『先導者』였다. 併合의 風雲이 急 할때 島山 安昌浩氏의 前後를 그리기로한 것으로 그속어나오는 인물들은 실상잇섯든 사람이 全部였고 嗚-마도 그새 活躍하든 姿態를 그새로 敘述하엿든 것이다.

그리고 史實에 忠實한것으로는 『端宗哀史』를 들겠다. 端宗哀史 속에 나오는 人物은 그새 朝廷과 民間에 起居하든 人物이었고 史實도 宮廷祕事に 忠實한 바가 만하엿섯다.”

이광수, 『『革命家의 安海』와 某家庭』, 『삼천리』 初夏號, 1930, 64-65면.

24) “이것의 소설일가 소설되기에는 넘어도 빼가지런 사실이 만코 이것이 사실일가 사실 되기에는 넘어도 파란곡절이 만흠니다. 현재에 류리하는 우리 동포의 정경을 그린 것으로 일종의 서사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일편의 피로 적은 서정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新小説 流浪 十五日부터 掲載』, 『동아일보』 1927.1.9.

리에는 이 소설이 “현재에 류리하는 우리 동포의 정경을 그린 것”이라는 사실성 혹은 전형성에 더 무게를 둔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식민지 시기 신문연재소설의 독특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신문’에 실리는 글로써 언론적 기능을 의식하며 소설이 창작되고 있다는 것, 소설의 형식을 빌려 결과적으로 공론을 조직하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교 참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메이지 시대에 발생했던 신문소설의 기원이다. 최초의 신문소설인 『平假名繪入新聞』의 『岩田八十八의 이야기』는 당시 공판(公判) 중이던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시절 검열을 피해 ‘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여 게재한 것이었다.²⁵⁾ 사실에 대한 보도였음에도 소설로 표방된 표면상의 속임수였던 것이다. 이와는 전혀 다른 맥락의 검열이지만, 이광수의 1920년대 신문연재소설들에서도 소설은 일종의 위장의 형식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민족 일간지를 편집, 기획하던 언론인으로서의 행보가 소설에 미분화 된 1인칭 서술자로 등장한다는 사실이 이를 추론하게 해준다. 그러나 미분화 된 서술자를 통한 공론의 조직은 완결되지 못했으며, 여기서 일련의 개작소설들의 완결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3. 신문 매체의 맥락과 내러티브의 재구성 - 개작소설을 중심으로

1920년대 초중반 세 편의 완결 개작소설들은 신문연재 장편소설로서 과도기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신문의 매체적 성격을 활용한 개

25) 오인문, 『신문 연재소설의 변천』, 『관훈저널』 25, 1977, 60-61면.

작소설들은 당시 동아일보나 이광수가 전개하던 민족주의적 기획을 실천하고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장편소설 자체로서의 내용적·형식적 완성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재고의 여지가 있다. 『허생전(許生傳)』(1923.12.1.~1924.3.21.), 『재생(再生)』(1924.11.19.~1925.9.28.), 『일설춘향전(一說春香傳)』(1925.9.30.~1926.1.2.), 연재 당시의 제목은 『春香』이 이에 해당한다.²⁶⁾

1920년대 최초의 완결 장편소설인 『허생전』은 연암 박지원(燕巖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옥갑야화(玉匣夜話)』 편의 일부인 ‘허생(許生)’ 이야기에 대한 개작으로, 이광수에게는 산문 단편, 서사시, 단형시에 이은 네 번째 허생 이야기 개작이다.²⁷⁾ 이 소

26) 이 세 편의 소설에 대해 유승환은 “이광수의 패러디 소설 3부작”이라 명명한다. (유승환, 『이광수의 『춘향』과 조선 국민문학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56, 2014)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허생전』과 『일설춘향전』은 창작기법으로서의 패러디(parody)의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패러디란 “선행의 기성품을 계승·비판·재조합하기 위해 재기호화하는 의도적 모방인용”(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59면)이며,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비평적 거리를 가진 확장된 반복’ 혹은 ‘반복과 다름’으로 정의”(정끝별, 『패러디』, 모약, 2017, 12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생전』과 『일설춘향전』은 고전을 통해 조선민족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계승하기 위함이 목적이기에 원본을 적극적으로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세 작품 중 패러디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를 저본으로 하는 『재생』일 것이다. 그러나 『재생』은 『금색야차』와 그 맥락을 다시 쓰는 것으로 하지 않으며 저본의 일부를 단지 환기한다는 데에서, “비판력 없는 닳음 혹은 모방을 특징”으로 하는 페스티시(pashtiche)에 가깝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재 당시 동아일보 지면의 소설 예고나 광고 등에서도 쓰이고 있는 ‘개작’이라는 명명을 사용하기로 한다.

27) 이광수는 이미 1910년대부터 허생 이야기를 여러 장르로 개작한 바 있다. 발표 순서에 따라 정리해보자면 ① 산문 단편 『먹적골 가난뱅이로 한 세상을 들먹들 먹한 허생원』(『아이들보이』 10호, 1914.6), ② 서사시 『許生傳(上)』(『새별』 16호, 1915.1), ③ 단형시 『窮한 선비』(『청춘』 8호, 1917.6), ④ 장편소설 『허생전』(『동아일보』 1923.12.1.~1924.3.21.)으로 나열해 볼 수 있다. 즉 동아일보에 연재된 장편소설 『허생전』은 허생 이야기 개작에 대한 최종 종합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광수의 허생 이야기에 대한 통시적 장르 개작에 대해

설은 당시 일반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연암의 텍스트를 대중화한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²⁸⁾ 당대 김태준의 지적처럼 1930년대에 오면 ‘허생전’이 원본의 제목으로 오해될 정도였던 것이다.²⁹⁾ 이와 더불어 『허생전』은 앞서 살펴본 미완작들에서의 미분화된 서술자의 문제를 해결한다.

“許生이 우리 民族의 性格의 어떤 方面과 傳統的·民族的 理想의 어떤 方面을 代表하는 點 으로 그는 어디까지든지 實在의 人物이다.

나의 唯一한 義務는 그의 奇想天外의 모든 行動과 事業과 그의 大海와 같은 胸宇를 가장 忠實하게 記錄함에 있다. 만일 그 일에만 成功한다 하면 讀者諸位의 期待에도 過히 辜負함이 없을 것이다.” (강조, 밑줄: 인용자)

- 『小説豫告 許生傳 作者로부터』, 『동아일보』 1923.11.28. (전집 10권, 505면)

“허생은 본래 어떤 사람인가. 아무리 조사를 하여도 그의 근본 내력을 알 길은 바이 없습니다. 전에 허생전을 지은 박연

서는 좋고, 『이광수의 고전 활용법- ‘허생 이야기’의 장르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4집, 2017 참고

- 28) 김남이의 연구에 따르면, 1900년 창강 김택영(滄江 金澤榮)에 의해 『연암집(燕巖集)』이 발행된 후, 일부 개화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연암의 사상이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서양 문명이 압도하는 근대 상황 속에서 당대의 시무에 합치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고전으로 평가받았던 것이다. (김남이, 『연암(燕巖)』이라는 고전의 형성과 그 기원 (1) - 19세기·20세기 초 연암 박지원이 소환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58, 2008)
- 29) 김태준은 1933년의 『증보조선소설사』에서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이회준의 『계서야담(溪西野談)』 등으로부터 전해내려오던 허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광수가 개작하여 『허생전』이라는 명칭으로 일반에 소개했다고 밝힌다.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170면) 그러나 근대적 맥락에서 『허생전』이라는 명칭은 1907년 『대한자강회월보』(제8호~제10호, 1907.2~4)의 국한문 번역에서부터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광수가 『허생전』이라는 명칭을 대중화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암 선생께서도 모르시던 모양입니다. 아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
외다.”

- 『허생전』 (전집 1권, 308면)

첫 번째 예문은 이광수의 창작 의도를 보여주는 연재 직전 작가의 말이며, 두 번째 예문은 장편소설 『허생전』의 일부이다. 작가의 말을 통해 이광수가 허생을 “전통적·민족적 이상”을 가진 “실제적 인물”로 인식하며 조선 민족을 위한 귀감으로 구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암 원본에서는 허구적 인물에 가까웠던 허생, 이광수는 실제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재현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소설은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구어적 경어체로 전개된다. 1인칭 화자가 2인칭 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이 소설에 1인칭 서술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서술자가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부분이 두 번째 예문이다. 허생의 실제성을 완전히 복원해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언급하는 부분은 집필 중인 작가 이광수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서술자는 1인칭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이후 소설은 3인칭 시점 안에서 무리 없이 완성된다. 즉 미완결작들에서 구분이 불분명하던 사실적 언론의 서술자가 사라지고, 허구적 소설의 서술자만이 남아 소설을 전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완전한 허구성 안에서 전달되는 소설의 주제는, 허생을 통해 식민 당대적 상황과 관련한 조선인의 정체성 문제, 조선의 미래에 대한 경륜, 조선적 신문화 건설에 대한 알레고리들이다. 이는 1920년대 이광수의 당면 과제인 동시에 동아일보가 창간 당시부터 주창했던 민족주의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이미 여러 차례의 기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듯, 이러한 허생 개작의 재맥락화는 당시 비난의 초점에 있었던 두 논설 『민족개조론』과 『민족적 경륜』의 연장선상에 있다.³⁰⁾ 특히 『허생전』 연재 중 발표되었던 이광수의 『민족적 경

류」이 친일 타협적인 민족운동의 가장 극단적 양상으로 비난받아 동아일보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명까지 발표해야 했을 정도였다.³¹⁾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과 정당성의 여부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소설적 형식을 빌려 공론을 조직하고 대중화 하고자 한 목표에는 성공한 셈이다.

1920년대의 두 번째 개작소설인 『재생』은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금색야차(金色夜叉)』(『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1897.1.1.~1902.5.11.)를 저본으로 한다. 『허생전』이 작가 이광수에게 익숙한 내러티브를 대중적으로 확산해나간 것이라면, 『재생』은 독자 일반에게 익숙한 내러티브의 대중성을 이용하여 재맥락화 한 소설이다. 『금색야차』는 일재(一齋) 조중환(趙重桓)에 의해 『장한몽(長恨夢)』(『매일신보』, 1913.5.13.~10.1)으로 번안 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상당히 대중적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었다.³²⁾ 그간 『재생』은

30) 대표적으로 김윤식은 당시 이광수가 『민족개조론』과 『민족적 경륜』 등에서 보여주었던 조선 민족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사이비 경륜”, “현실타협주의”로 규정하고, 이러한 성향이 허생의 성격과 맞아떨어졌기에 “춘원의 붓끝은 훨훨 나는 듯” 장편소설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2, 숲, 1999 112면) 또한, 최주환의 일련의 연구는 『민족개조론』과 『허생전』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민족개조론』이 강조하는 조선 민족에 내재한 인의예용(仁義禮勇)의 친품과 『허생전』에서 허생이 건설하는 ‘남조선’ 공동체의 지향점의 일치를 ‘상애(商愛)의 윤리학’으로 설명하며, 나아가 허생의 공동체에서 동학 이념과의 관련성 역시 밝혀낸다. (최주환, 『민족개조론과 상애(商愛)의 윤리학』,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2014: —,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재고』, 위의 책)

31) 1920년대 이광수를 주축으로 한 동아일보의 민족주의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 2010; 김명규,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계열의 민족운동론 - <동아일보> 주도층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 2002;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민족담론의 전개와 좌우투쟁』, 『역사와현실』 39, 2001

32) 심순애가 이수일의 사랑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삼각관계의 내러티브는 당대 통속의 전형이었다. 유행창가, 서도소리, 대중연예물, 신파극, 영화 등으로 매체를 확장하여 1970년대까지도 폭넓게 향유되어 소위

주인공 봉구가 자신의 처지와 『금색야차』의 주인공 하자마 간이치를 비교하며 원본을 언급하는 장면³³⁾을 근거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것은 ‘하편(下篇)’의 시작 부분이며, 후반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상 독자들이 ‘상편(上篇)’이 진행되는 내내 오자키 고요의 원본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생』에서 어떤 원본을 떠올렸다면 『장한몽』에 의해 대중화 된 돈과 사랑 사이의 삼각관계라는 당대의 진부하고 통속적인 도식(formula)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설 연재의 중반 지점에서 서술자가 노골적으로 『금색야차』를 언급하는 것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주인공 김순영이 부자 백윤희의 재력에 눈 멀어 남주인공 신봉구를 배신하는 상편의 전개는 두 원본의 플롯과 유사하다. 그러나 원본이 밝혀진 이 후부터 『재생』의 플롯은 『금색야차』와는 전혀 다른 전개를 보이며, 플롯 구성상의 균형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본다면 실패다. 상편의 전개는 근대 사회에서 자본에 대한 욕망을 따르는 속물적 타락의 플롯을 따르며, 김동인조차도 『재생』 상편은 플롯의 기법에 있어서는 완전하다는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³⁴⁾ 플롯의 자율적 질서가 확보되어

‘신파(新派)’의 원형이 되었다. (박진영,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의 대중문예적 성격과 계보 - 〈장한몽〉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3집, 2004)

33) “『금색야차』라는 일본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하자마 강이찌를 생각한 것이다. 그는 가끔 자기를 ‘강이찌’에게 비겨 본다. 비겨 보면 어떻게든 그렇게 같은가 하고 감탄하게 된다. 그러나 ‘강이찌’가 왜 그렇게만 ‘오미야’에게 원수를 갚았나, 왜 더욱더욱 철저하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갚지를 아니 했나 하였다.” (밀줄, 강조: 인용자)

- 『재생』 (전집 2권, 97면)

34) “春園의 전 작품을 통하여 이 〈재생〉 상편만치 기교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없다. …(중략)…

플롯을 꾸미는 데 있어서 너무도 흥미 일방으로 만든 것과 취급된 문제가 너무도 〈金色夜叉〉 식이기 때문에, 통속소설의 비방은 면치 못하겠지만, 기교에 있어서는 만점이었다.

이 소설은 하편이 씌어지기 때문에 전편을 망쳐 버렸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편에서 펼쳐놓은 플롯의 질서는 하편에서 무너진다. 자본에 대한 속물적 욕망과 근대 자본의 질서가 두 원본을 비롯한 『재생』 상편의 플롯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지만, 『재생』의 하편은 이것으로부터 이탈하면서 플롯의 균형이 깨어지고 내러티브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것이다.³⁵⁾ 순영에게 배신당한 봉구는 고리대금업자가 되지만, 『금색야차』의 주인공 간이치처럼 철저하게 자본의 노예로 고리대금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살인 누명을 쓰고 갇힌 감옥에서, 비약적으로 사고를 전개하여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한 회개를 통해 보편적 인류애로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출소 후 농촌계발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재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금색야차』의 여주인공 미야가 자발적 배신에 대해서만 처벌받는 것과는 달리, 『재생』의 순영에게는 상황의 피해자라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 욕망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어 결국엔 행려병자로 소경 딸과 자살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 소설의 인물들에게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 과도한 회개와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이들이 모든 것의 기원인 3·1운동 당시에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의무로부터 눈을 돌려 개인적인 애정과 욕망에 몰두했기 때문이다.³⁶⁾

그리하여 이 지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재생』이 구현하고 있는 근

- 김동인, 『春園研究』, 『金東仁全集』 6, 삼중당, 1976, 106면.

35) 이러한 불균형성은 기존 연구들에서 패러디와 다시쓰기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서영채는 원본인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와는 달리 주인공 신봉구가 능동적인 피해자와 희생자의 주체되기를 자처하는 모습을 통해 『무정』의 속편으로서 식민지 지식인의 모럴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서영채, 『자기희생의 구조 - 이광수의 『재생』과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 『민족문화연구』 58호, 2013)

36) 이러한 『재생』의 이야기 구조에 대하여, 이혜령은 『재생』이 정치적 저항의 운동을 남녀의 러브스토리와 스캔들로 대체함으로써 이를 회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이혜령, 『正史와 情史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학사연구』 40, 2009)

대중교에 의해 재맥락화 된 '의(義)'의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의의 가치가 상실된 상황을 논의하는 『재생』의 내러티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속물적 질서(『금색야차』적 원본의 질서)조차 과행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식민의 현실을 자극적 소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재생』의 인기로 신문연재소설의 동시적 공감대 역시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³⁷⁾ 특히 이광수는 애초에 『재생』을 기획할 당시 통속적 “작난”이나 상품으로 유통되는 “장사”로서의 “재미”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을 창조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예술품은 “벌거벗은 조선”에서 “조선의 운명을 맡”은 “조선 사람들”을 위한 “동정”과 “성정”과 “힘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³⁸⁾ 이는 당시 이광수가 가지고 있던 민중 개조를 위한 예술론과 맞닿아 있다.³⁹⁾ 결과적으로 『재생』은 개조를 위한 도덕(구체적으로는 ‘의’)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

37) “이 〈재생〉이 《東亞日報》상에 연재될 때에 얼마나 많은 학생(그중에서도 여학생)이 신문 배달부를 마치 情人이나 기다리듯 기다렸으며, 서로 소설의 展開를 토론하며 슬퍼하고 기뻐하였는가?”

그만치 전 조선의 청년 남녀에게 空前의 환영을 바든 〈再生〉이 또한 어찌하여 그렇듯 일찌기 버림을 받았는가?”

- 김동인, 『春園研究』, 『金東仁全集』 6, 삼중당, 1976, 102면

38) “예술품을 짓는 것은 작난이 아니다. 장사는 더욱 아니다. 재미없는 예술품은 예술품이 아니어나와 재미만이 예술품의 생명도 아니다. …(중략)…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동정과 모든 성정과 모든 힘을 다하여 이것을 씁니다고.

지금 내 눈앞에는 벌거벗은 조선의 강산이 보이고, 그 속에서 울고 웃는 조선 사람들이 보이고, 그중에 조선의 운명을 맡았다는 젊은 남녀가 보인다. …(중략)…

나는 〈先導者〉를 중편까지만 쓰다가 경무국의 불인가로 중지하고 〈金十字架〉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再生〉을 쓰기로 하였다. 그것이 쓰고 싶기 때문이다.”

- 『『재생』 作者의 말』, 『동아일보』 1924.11.8.

39) 이 시기 발표된 『예술과 인생 - 신세계와 조선의 사명』(『개벽』 제19호, 1922.1.)에서 이광수는 도덕과 예술이 하나이며 양자 모두 인생과 개인의 개조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민족개조론』과의 친연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는 측면은 있었지만 전개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민족적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적 욕망으로의 일탈을 꿈꿀 수 있는 위치의 주체를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재생』의 봉구나 순영이 3·1운동의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고는 해도 일개인일 뿐이었다.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타락과 민족적 타락이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광수가 1920년대 말 역사소설을 통해 비극적인 국체(國體)의 자리를 형상화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20년대의 세 번째 개작소설인 『일설춘향전』은 동아일보사에서 전개된 국민문학 기획이었다. 현상금까지 내걸고 춘향 개작자를 공모했으나 마땅한 저자를 찾지 못해 결국 편집국장 이광수에게 맡겨진 것이다.⁴⁰⁾ 시작부터 민족주의적 기획을 표방한 이광수의 춘향 개작은 초반에는 의욕적으로 근대소설적 내러티브의 특징들을 구사한다. 완전히 허구화 된 3인칭의 서술자가 등장하여 내러티브의 이야기와 담론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소설 중 첫 장인 ‘緣分’은, 춘향과 몽룡의 만남이라는 표층적 이야기 차원이, 공간과 인물의 이동이라는 심층적 담론 차원과 연결되면서 구조화 된 내러티브를 구사한다.⁴¹⁾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40) “춘향전은 심청전과 아울러 조선 국민문학의 대표를 이룬 것이다. …(중략)… 언제나 한번 춘향전 심청전은 우리 시인의 손을 거쳐 일리고 씻기고 정리되어서 참된 국민문학이 되어야 할 운명을 가진 것이다. …(중략)… 응모하신 여러분에는 심히 미안한 일이나 춘원 이광수 씨에게 청하여 춘향전을 쓰기로 하였다.

…(중략)… 우리는 만천하 독자로 더불어 춘원이 필생의 정력을 다하여 그리는 위대한 우리 문학을 팔목하고 보려한다.”

- 『小説豫告 春香傳 改作: 『春香』 春園作』, 『동아일보』 1925.9.24.

41) ‘緣分’ 장에서 소설의 공간은 3개로 구분되어 있다. 광한루에서 봄의 한정을 즐기는 몽룡의 공간과, 늙은 수양버들 밑에서 그녀를 뛰는 춘향의 공간, 그 사이에 놓여진 오작교이다. 춘향의 그녀가 움직이는 진폭만큼 몽룡의 마음이 설레며, 이러한 마음의 진폭을 실제화 하는 것이 오작교를 사이에 두고 둘 사이를 수없이 왕복하는 방자의 움직임이다. 이처럼 애정의 시작이라는 이야기 차원과 이를 구조화 하는 공간의 담론 차원이 완전히 허구화 된 3인칭의 서술자에 의해

근대소설적 기법 구사를 찾아보기 힘들며, 소설 자체만으로는 그의 의나 당시의 공감대를 짐작하기 힘들다. 이광수의 여타 작품에 비해 『일설춘향전』에 대한 기존 연구가 유독 텍스트 외적 맥락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승환의 논의에서는 동아일보의 국민문학 기획 연장선상에서 이광수가 『춘향전』을 근대적인 ‘읽는 텍스트’로 전환했다고 밝힌다.⁴²⁾ 또한 최주한은 당시 총독부에서 발간하던 식민지에 대한 고서 간행 사업과 결합하는 측면에서 동아일보의 기획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한다.⁴³⁾ 텍스트 자체에 보다 집중한 연구인 이지영의 논의는 후반부로 갈수록 이광수의 개작이 최남선의 〈고본춘향전〉의 통속성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음을 밝힌다.⁴⁴⁾ 이러한 상황들은 텍스트 자체만으로는 『일설춘향전』이 근대성 측면에서도 국민문학 기획에 있어서도 역부족인 소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세 편의 개작소설들이 대중성 확보와 동시에 민족문화적 기획들을 일정 정도 달성한 것은, 이광수가 신문 매체의 성격을 보다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보여준다. 매일 일정 분량의 익숙한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것을 통해 연재 기간 동안 여론과 대중의 감정을 움직였던 것이다.⁴⁵⁾ 그리고 이러한 대중적 기반이 후에 등장할 역

완성되고 있는 것이다.

- 42) 유승환, 「이광수의 『춘향』과 조선 국민문학의 기획」, 『민족문화사연구』 56, 2014
- 43) 최주한, 「문화횡단적 경합으로서의 『일설춘향전』 - 〈춘향전〉의 번역과 개작을 둘러싼 문화횡단적 경합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0, 2016
- 44) 이지영, 「이광수의 〈일설춘향전〉에 대한 再考」, 『한국현대문학연구』 49, 2016
- 45) 이미 1910년대부터 ‘정(情)의 분자’로서의 문학을 통해 조선 민족을 계몽하고자 했던 이광수의 기획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김행숙은 개인과 공동체와 문학을 구성하는 원리로서의 이광수의 ‘정(情)’의 기획에 대해 논의하며(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33집, 2011), 김동식은 진화론에 바탕을 둔 「민족개조론」에 감정의 진화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며(김동식, 「민족개조와 감정의 진화 : 1920년대 이광수 문학론에 대한 예

사소설의 전제가 되었으리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개작 소설들은 그 자체만으로 1920년대 이광수의 기획들을 담아낼 수 없었으며 더 큰 범주의 다시쓰기가 요구된다. 역사소설이 다루는, 허구를 넘어서는 ‘사실(事實/史實)’의 차원, 사적 개인이 아닌 ‘공적 주체’의 자리가 이후 등장하게 되는 이유이다.

4. 민족주의적 망탈리테로서의 플롯 완성 - 역사소설을 중심으로

1920년대 후반의 역사소설 『마의태자(麻衣太子)』(1926.5.10.~1927.1.9.)와 『단종애사(端宗哀史)』(1928.11.30.~1929.12.11.)는 비극적인 국체(國體)의 자리를 형상화 했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후 『이순신』(『동아일보』, 1931.6.26.~1932.4.3.), 『이차돈의 사』(『조선일보』, 1935.9.30.~1936.4.12.), 『원효대사』(『매일신보』, 1942.3.1.~10.31.), 『세조대왕』(1940), 『사랑의 동명왕』(1949) 등의 역사소설에서까지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진다. 앞서 살핀 1920년대 초중반 미완작들과 개작소설들의 시행착오가, 역사소설 안에서 개인적 타락과 민족적 타락이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를 통해, 조선 민족을 위한 문학을 기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신라 구빅년 사직이 멸망하는 비극”⁴⁶⁾에 “만천하 십만독자”가 (마의)“태자와 가치 울”⁴⁷⁾어 보자는 동시적 공감대 형성

비적 고찰, 『한국학연구』 29, 2013), 손유경은 이광수로부터 기원하는 근대 초기 한국문학에 나타난 동정과 감정의 역사를 추적한다.(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46) 『連載小說 豫告 - 歷史小說 麻衣太子』, 『동아일보』 1926.4.26.

47) 『麻衣太子 下篇 - 來週 月曜부터 掲載』, 『동아일보』 1926.10.4

을 위해 집필된 것이 『마의태자』이며, “조선력사의 축도요, 조선인 성격의 산 그림인 단종대왕 사건”에 드러난 “인정과 의리”⁴⁸⁾를 보여 주고자 한 소설이 『단종애사』이다. 식민지 조선의 망국적 상황을 자각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義)’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한 조선적 정체성의 모색이 두 편의 역사소설인 것이다. 비극적 국체와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실(史實/事實)들을 통해 ‘실국(失國)’의 상황에서 ‘충의(忠義)’를 지켜가는 플롯은 신문연재소설로서 공론의 중심점이 되어 민족주의적 발화의 확산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식민지 조선의 역사소설로서 두 작품은 이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전형적 플롯을 구축했다는 데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우선 『마의태자』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이 소설은 그동안 제목 설정과 주인공 형상화와 더불어 실패한 플롯으로 치부되어 왔다. 제목이 ‘마의태자’임에도 소설의 중반부인 상편까지는 궁예의 이야기구조를 이루며, ‘상편(上篇)’과 ‘하편(下篇)’의 서사가 잘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다. 김동인이 “소설로서의 일관한 이야기의 줄기가 엮고, 계통이 엮”으며, “소설적 의미의 주인공도 불분명”한, “두 개의 이야기를 맞 이은 데 지나지 못”하여 “소설로는 볼 수가 없”⁴⁹⁾다고 혹평한 이래, 『마의태자』의 구조적 미흡함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마의태자 이외에 궁예, 견훤, 왕건 등 “절세영웅의 삼각전(三角戰)”을 다루고자 한 것은 소설 연재 이전부터 기획되어 있었던 것이다.⁵⁰⁾ 또한 제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사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상편과 하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상동관계로 대

48) 『小説豫告 - 端宗哀史』, 『동아일보』 1928.11.20.

49) 김동인, 『春園研究』, 『金東仁全集』 6, 삼중당, 1976, 115면.

50) “작자 춘원은 그의 웅건한 붓을 새롭게 하여 신라 구백년 사적이 멸망하는 비극을 좇대로 하고 궁예(弓裔) 현훤(甄萱) 왕건(王建) 등의 절세영웅의 삼각전(三角戰)을 여실히 그려냈습니다.”

- 『連載小説 豫告 - 歷史小説 麻衣太子』, 『동아일보』 1926.4.26.

응되는 것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서사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편에서는 ‘의(義)’의 가치를 대변하는 궁예의 자멸을 보여주고⁵¹⁾, 하편에서는 ‘충(忠)’의 가치를 대변하는 마의태자의 자멸⁵²⁾을 보여준다. 이들은 사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적 주체로서 각자가 대표하는 가치를 지켜야 하지만, 결국 향락과 쾌락에 빠진 신라의 왕족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망국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이들이 몰락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위(威) 즉 힘의 논리를 가진 신흥 권력 왕건에 의해서이다.⁵³⁾ 신라 멸망에 나타나는 두 비극적 국체를 둘러싼 대응적, 대립적 서사구조는 독자들에게 당대의 망국적 상황을 환기하게 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광수가 비극적 국체의 자리를 재현하는 플롯 구성에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통의 경우 이광수는 신문연재 이후 단행본 출판에 있어서 큰 폭의 수정을 하지 않았지만, 신라의 망국을 전달하는 『마의태자』 하편에 있어서만큼은 여러 차례 소재목과 장 구성을 변경한다.⁵⁴⁾ 유독 노골적으

-
- 51) 궁예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의태자』 상편에서 강조되는 것은 궁예가 추구하는 ‘의’의 가치이다. 스승인 백의국선으로부터 “백성의 마음은 의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백성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곧 천하를 얻는 사람”(전집 2권, 288면)이라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궁예는 원수에게까지 의리의 가치를 적용한다. “의리있는 원수는 내가 의리를 지키는 동안 내 의리를 알아”(전집 2권, 352면) 줄 것이라는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다.
- 52) 마의태자는 부친으로부터 “충신이 되라”는 의미로 충성 ‘충(忠)’을 이름으로 부여받는다(전집 2권, 408면). 그러나 “큰집이 무너질 때에 외기둥이 버틸 수가 없”(전집 2권, 425면)은 이치로 충의 가치는 지켜지지 못하고 마의태자는 음력과 미회에 빠지게 되어 자멸의 길로 접어든다.
- 53) 왕건은 궁예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과 불의의 상징이며, 마의태자를 비롯한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불충과 권모술수의 상징이다. 그러나 왕건에게는 위(威)가 있다. “왕의 위엄이 당당”함은 “신라 왕에게는 비길 수가 없”(전집 2권, 380면)이며, 이는 새 국가의 체계에도 적용된다. 궁예와 마의태자로 상징되는 비극적 국체에 대조되는 힘의 논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 54)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마의태자』의 단행본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최초의 단행본 출판에 있어서 이광수는 상편의 소재목은 남겨둔

로 망국과 의의 상실을 내세우는 하편의 플롯을 변경한 이유는, 검열에 의해서였을 수도 있고 상편과의 플롯상 균형 확보에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20년대 첫 신문연재 장편 소설인 『선도자』로부터 추구한 근대적 ‘의’의 가치를 담아낼 적합한

채, 하편의 소재목이었던 ‘의는 죽는다’ ‘사랑은 싫다’ ‘오호경순’ ‘마의태자’ 등을 삭제하고 ‘하편’의 장 구분을 없앴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판본들로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1940년과 1950년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다시 소재목과 장 구분을 교체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동아일보』 연재 (1926.5.10.~1927.1.9.)		• 박문서관 (1928~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문출판사 (上), (下) (1952) • 경진사 (上), (下) (1954) • 광영사 (上), (下) (1961) 	
허두	상편	허두	상편	허두	상
국상		국상		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수리재		수리재		수리재	
원수		원수		원수	
태백산		태백산		태백산	
백의국선		백의국선		백의국선	
징조		징조		징조	
풍운		풍운		풍운	
사랑과 원수		사랑과 원수		사랑과 원수	
배반		배반		배반	
의는 죽는다	하편	하편 (장 구분 없음)	고식지계	하	
사랑은 싫다			사월과일		
포석정			남교곡(南郊曲)		
오호경순			그날밤		
마의태자			포석정		
			임해전		
			돈도암		

- 박문서관 본(1928~1940) 서지사향 : 昭和 3년 (1928) 1월 15일 초판 발행 / 昭和 9년(1934) 10월 30일 재판 발행 / 昭和 12년 (1937) 6월 30일 삼판 발행 / 昭和 14년 (1939) 6월 30일 사판 발행/ 昭和 15년 (1940) 4월 30일 오판 발행 / 昭和 15년 (1940) 12월 25일 육판 발행
- 박문출판 본(1952) 서지사향 : 檀紀 4285년 (1952) 12월 30일 초판 발행
- 경진사 본(1954) 서지사향 : 檀紀 4287년 (1954) 3월 15일 발행
- 광영사 본(1961) 서지사향 : 檀紀 4294년 (1961) 10월 25일 재판 발행본 확인

내러티브를 찾기 위한 모색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의태자』에서까지도 과도기적이었던 식민지 조선을 위한 플롯 구상은 『단종애사』에서 완성된다.

『단종애사』는 추강 남효운의 『육신전(六臣傳)』, 이공익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등을 저본으로 참고한다.⁵⁵⁾ 한 인물의 공적 궤적을 다룬 『육신전』의 기전체(紀傳體), 저자의 논리에 따라 주요 사건을 재편성한 『연려실기술』의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 날짜에 따르는 역사 기록의 방법인 편년체(編年體) 등이 이광수가 참조한 역사 서술의 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서사의 방식을 빌린 『단종애사』는 마치 고전적인 역사서를 편찬하듯, ‘고명편(顧命篇)’, ‘실국편(失國篇)’, ‘충의편(忠義篇)’, ‘혈루편(血淚篇)’ 등 총 네 개의 편(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명편과 혈루편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 해당한다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며 주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실국편과 충의편이다.

서사의 중심이 되는 ‘실국편’과 ‘충의편’은 1920년대 이광수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플롯의 구조이기도 하다. ‘실국편’을 이끄는 중심 플롯은 수양이 세조가 되는 권력 찬탈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의와 악의 질서인데, 여기서 이광수는 나라를 상실하게 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법칙을 적용해 플롯을 이끌어나간다.⁵⁶⁾ ‘충의편’에서는 그럼에

55) 신봉승은 『歷史小說 研究 - 『端宗哀史』와 『春園研究』를 中心으로』(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에서 김동인의 「춘원연구」 이래 오해되어 온 『단종애사』의 저본을 바로잡는다. 남효운의 『육신전』을 골자로 그 모순과 부자연까지도 답습했다는 김동인의 평가가 그릇된 평가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육신전」과 더불어 텍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외에, 『어우야담(於于野談)』, 『필원잡기(筆苑雜記)』 등의 저본을 『단종애사』 본문과 비교하여 그 영향 관계를 밝히고 있다.

56) 대표적인 것이 수양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론 모으기의 방식이다. 수양대군의 칙사 한명회는 불평객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수양을 향한 단체를 조직하고 세력을 집결시킨다. 여기서 「민족개조론」과 「증추계급과 사회」에서 강조한 단체 조직의 중요성이 반어적으로 표출됨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의 증추계

도 불구하고 의(義)를 지켜가는 인물들의 행적이 계층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며 전개된다.⁵⁷⁾ 비극적 국체인 단종의 서사적 재현이란, 이미 정해진 망국을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단종의 형상화보다 세대에 대한 일반론이나 주변인물들의 유형화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실국-충의'의 플롯이 완성된다. 플롯의 법칙을 통해 전개되는 '실국편'과 인물군을 분류하여 서술되는 플롯인 '충의편'은, 지금까지 논의한 1920년대 신문연재소설들의 내러티브가 종합적으로 완결된 모습이기도 하다. 가망 없는 나라나 이미 망한 조국에 대해 충의를 지키는 혹은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였던 1920년대 신문연재장편소설들의 의도가 『단종애사』의 플롯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신문의 독자들을 통해 공감의 구조를 확장한다. 『단종애사』의 연재가 마무리 될 무렵, 『동아일보』에는 '단종애사 독후감' 모집 광고가 게재된다. 투고에 응모하여 선정된 독자들의 독후감이 1929년 11월 12일부터 1930년 1월 12일까지 총 22회 등장한다. “되도록 葉書 一枚”에 작성해달라는 신문사 측의 요구에 의해 보통 1단 정도의 짧은 길이로, 때로는 운문 형태로 작성되거나, 지역별 대표작을 선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단종애사』가 조선 민족의 감정을 자극하여 감명을 준다는 내용의 독후감이 주로 실리면서, 신문연재소설로서의 시의성과 공론 구성 측면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⁸⁾ 특히 공론의 구성과

급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실국으로 향하게 하는 부정적 단체가 출현하게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57) 실국의 상황에서 충의를 보여주는 것은 육신(六臣)들만이 아니다. 애초의 연재 계획에서 '육신편'이었던 제목이 후에 '충의편'이 된 것은, 조선적 충의의 보편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실국편'에서는 세조가 된 수양 내부에도 일말의 충의는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를 시작으로 단종 주변 궁중 인물들의 충의, 단종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반 백성들의 충의, 사육신들의 충의 등이 차례로 제시된다.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독후감에 대한 독후감이 재차 등장하여 『단종애사』가 동아일보와 이광수가 의도한 민족주의적 공론을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다. 1929년 12월 28일자 『동아일보』에는 KSM이라는 필자의 독후감이 실린다. 이광수의 의도를 존중하며 등장인물들에 대한 논평을 전개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문제의 「민족개조론」을 언급한다. 『단종애사』를 읽으며 “儒敎로부터 어든 民族性의 缺陷”, “文弱이라는 말로 표시할 수 있는 缺陷”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서술하며, 이것이 「민족개조론」에서 “論文으로 盡히 못하고 表現치 못한 바를 小說을 통하여 보혀주고 늦기게 하자함이 아닌가 한다”라며 이광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30년 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KSM의 독후감에 대하여 필명조차 밝히지 않은 “一 讀者”의 비판 기사가 실린다. 조선의 결함을 유교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에도 반대하며, 『단종애사』의 부정적 인물들을 조선인의 전형성으로 규정하여 민족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도 비판을 가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단종애사』를 둘러싼 감상과 해석의 논의가 결국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민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면서 1920년대 이광수가 기획했던 민족주의 문학의 기획은 일정 부분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지점에서 『단종애사』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신문연재 장편소설을 통한 텍스트의 회로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 기획되고 구성되었던 망탈리테(mantalité)의 한 단면을 말할 수 있게 된다. “한 민족이나 집단의 특수한 사고방식이나 정서적 반응 방식”

58) 게재된 ‘단종애사 독후감’은 이광수의 작품 구상 의도와 부합하는 내용의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春園의 麻衣太子와 함께) 우리 民族의 理想과 愛情을 根據로 한 國民文學의 正當한 路”(1929.11.14.)이라는 언급이나 “이 作品에 나타난 一片忠義는 우리 民族이 잇을 때까지 그 皮속에 永遠히 흐를 것”(1929.11.15.)이라는 내용 등 민족적 공감대 구성의 목적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자 “집합 표상” 혹은 “집합 의식”을 망탈리테로 정의할 수 있다(면⁵⁹), 1920년대 이광수가 전개한 문화적, 문예적 구상들을 망탈리테의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1910년대 말에 세워진 이광수의 신문화 건설에 대한 막연한 목표는 1920년대에 들어 조선적 신문화, 신문예 건설로 구체화 되고 실천된다.⁶⁰⁾ 이는 소설 창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타나며, 자칭 “민족주의 문학”⁶¹⁾으로 명명한 1920년대의 문학적 입장과의 맞닿아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이광수의 ‘실국-충의’의 플롯이 역사소설 장르의 시초가 됨과 동시에 이후 작가들에게까지 하나의 저본으로 작용했다는 것에서 식민지 조선의 플롯 모색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것도 말할 수

59) 김영범, 『망탈리테사 : 심층사의 한 지평』, 『사회와 역사』 31, 1991, 262-265면.

60) 이는 당시 대표적인 논설과 평론들에 확연히 드러난다. 1917년 12월 20일자 『學之光』 제14호에 발표된 『우리의 理想』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유럽적 문명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양 문화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직 이광수의 목표는 막연하다. “조선족이 존재의 가치를 엿을길은 하나이오 또 오직 하나이니 즉 조선족의 것이라 일컬을 新文化를 創造함이외다”라며, 조선의 신문화 건설을 주창한다. 그러나 신문화의 내용은 막연해서, 신문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신력, 자각, 노력의 세 가지 가능성이 조선민족에게 내재해있다는 사실만이 제시된다.

그러나 1920년대에 들어와 연이은 장편소설 창작 이후 이광수는 신문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문학 특히 소설을 통한 ‘신문예(新文藝) 건설’로 구현하며 이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한다. 192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조선 문단의 현상과 장래』에서 이광수는 “소설 하나만은 일본문학에지지 아니하리라고 믿을 만한 진보”를 하였으며, “급일의 조선문학의 중심은 소설”이라고 자부한다. 또한 같은 해 11월 『조선문단』 제13호에 발표된 『우리 文藝의 方向』에서는 “조선에도 신문학 또는 신문예라는 것이 확실히 있게는 되었다”라며 ‘신문학=신문예’의 일치를 보여준다. 한편, 1925년 11월 2일에서 12월 5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평론 『文藝瑣談-新文藝의 價値』에서는 이러한 자부심을 이어가며 “조선어문의 위기에 있어서 그 명맥을 보존”하고 “신사상의 주입”하는 역할을 조선적 신문예가 담당하고 있음을 천명한다.

61) 1930년 이광수는 1920년대 10년간의 문학 활동을 회고하며, “나의 문학상 주의요? 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족주의 문학이겠지요.”라며 본인의 문학적 입장을 정리한다. (이광수, 『作家로서 본 文壇의 十年』, 『別乾坤』, 1930.1. (전집 10권, 583면))

있다. 『마의태자』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소설'이라는 명칭은, 역사의 총체성을 재현하는 근대 장르적 의미에서의 최초의 사용이다.⁶²⁾ 나아가 『마의태자』는 흥망사의 표지로 이후 유치진의 희곡 『개골산』과 한상직의 희곡 『장야사』 등에도 영향을 주었다.⁶³⁾ 한편 『단종애사』는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조명되고 있었던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를 실국과 충의의 플롯으로 정리하여 이후 『단종혈사』(1936), 『대수양』(1941) 등과도 파생적 관련성을 보여준다.⁶⁴⁾⁶⁵⁾ 이광수의 1920년대 역사소설이 장르적 남상으로서 이후 등장할 식민지 조선의 역사소설 장르에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⁶⁶⁾ 따라서, 이광수의 192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시행착오와 그 성취는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 민족적 망탈리테를 자극하는 플롯 모색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
- 62) 신문연재를 통한 역사소설 장르의 구축 과정을 살피는 김병길의 연구(『역사소설, 자미(滋味)에 빠지다 : 새로 쓰는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계보학』, 삼인, 2011)는 이광수는 『마의태자』를 신문연재소설로서 역사소설이 탄생한 남상(濫觴)의 지점으로 평가한다.
- 63) 공임순, 『일제 말 흥망사 이야기와 타락의 표지들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41, 2005
- 64) 김성철의 연구에 따르면 1910년대부터 부각되던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가 이광수의 『단종애사』에 와서 대중화 되었고 이후에도 파생 작품들을 낳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철, 『『단종대왕실기』와 〈단종애사〉의 허구적 여성인물에게 투영된 작가의식』, 『우리문학연구』 43, 2014)
- 65) 특히 김동인의 단종과 세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이광수와 더불어 특별하다. 김동인은 자신의 사담(史談)인 『首陽大君』과 이광수의 『단종애사』를 비교하며 역사소설에 대한 입장을 대항적으로 설정한다. (『歷史와 事實과 判斷과 -史料에 對한 作者의 立場을 論함』, 『매일신보』 1936.4.26.) 이후 이광수가 저본으로 한 남효은의 저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며(『小說家 南孝溫』, 『매일신보』 1938.6.1.), 『춘원연구』(1939)에서는 『단종애사』를 소설이 아닌 사화(史話)라 비판하며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하여 1941년 작 『대수양』(『조광』 1941.2~12)은 김동인이 이광수의 『단종애사』와 대결적 입장에서 발전시켜온 통시적 문제의식의 완결이다.
- 66) 김병길, 위의 책, 92면.

5. 결론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이광수 문학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무정』은 이광수 문학의 본격적 시작이자 한국 근대소설의 시작이다. 또한 이후 1930년대에도 이광수의 신문연재를 통한 장편소설 창작은 계속된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1920년대의 『동아일보』 신문연재 장편소설에 주목하는 것은, 이 시기가 식민지 조선 최초로 창간된 민족지 신문 안에서 언론인으로서, 민족지 사로서, 소설가로서 이광수의 민족주의적 기획이 구체화 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설이 담당하던 역할과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1920년대 초중반의 미완작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소설적 형식 안에 언론과 공론을 담아야 했던 식민지적 상황이다. 소설은 그 자체의 자율적 질서보다는 은밀한 발화를 위해 빌려진 형식이었으며, 언론인과 소설가가 미분화된 1인칭 서술자는 양자를 충분히 조화하지 못한다. 1920년대 초중반 일련의 개작소설들이 보여주는 것은 보다 신문 매체의 맥락이 고려된 연재소설의 모습이다. 조선의 고전이든 당대의 통속적 내러티브이든, 익숙한 내러티브를 매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담아낸 것이다. 그러나 매체적 맥락 없이 자율적 동력을 확보할 수 없었던 개작소설들은 또 다른 모색을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이광수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역사다. 역사 다시쓰기는 당시 언론인과 민족지사로서 1920년대 이광수가 구상했던 민족주의적 신문예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인 동시에, 1920년대 최초의 미완 장편소설인 『선도자』에서부터 시행착오를 겪었던 근대적 의(義)의 가치를 내러티브의 형태로 완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단종애사』에서 완성된 ‘실국-충의’의 플랫폼은 당대의 독자들에게까지 공론 참여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후 식민지 조선

에서 반복 확장되는 플롯의 하나가 되었다는 데에서, 식민지 조선의 망탈리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처럼 암묵적 동의와 공감대 속에서 무언가를 빌려 말하는 소설의 방식은 근대문학의 조선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는 근대문학의 전 세계적 확산이 세계체계(world-system)라는 획일화의 원리를 따라가는 동시에 그것이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되는 진화(evolution)의 양상 역시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번역가능한 중심부의 플롯(a plot from the core)의 도입이 번역불가능한 주변부의 스타일(a style from the periphery)로 다변화해 가는 현상이다.⁶⁷⁾ 이광수의 식민지 조선의 소설이 근대적 소설이라는 형식을, 익숙한 플롯을, 공통된 역사의 서사를 나름의 방식으로 전유하는 것은, 근대문학의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스타일의 진화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67) Franco Moretti, "Evolution World System Weltliteratur", *Distant Reading*, Verso, 2013.

■ 참고문헌 ■

1. 1차 문헌

- 『개벽』
 『동아일보』
 『삼천리』
 『이광수 전집』 (전 11권), 우신사, 1979
 『학지광』

2. 단행본 및 논문

- 공임순, 「일제 말 흥망사 이야기와 타락의 표지들에 관한 연구」, 『국어국문학』 141, 2005
 김남이, 「‘연암(燕巖)’이라는 고전의 형성과 그 기원 (1) - 19세기·20세기 초 연암 박지원이 소환되는 방식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58, 2008
 김동식, 「민족개조와 감정의 진화 : 1920년대 이광수 문학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 『한국학연구』 29, 2013
 김동인, 『춘원연구』, 『김동인전집』 6, 삼중당, 1976
 김명구, 「1920년대 국내 부르주아 민족운동 우파계열의 민족운동론 - <동아일보> 주도층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0, 2002
 김병길, 『역사소설, 자미(滋味)에 빠지다 : 새로 쓰는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계보학』, 삼인, 2011
 김성철, 「『단종대왕실기』와 <단종애사>의 허구적 여성인물에게 투영된 작가 의식」, 『우리문학연구』 43, 2014
 김영범, 「망탈리테사 : 심층사의 한 지평」, 『사회와 역사』 31, 199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2, 솔, 1999
 김정인, 「1920년대 전반기 민족담론의 전개와 좌우투쟁」, 『역사와현실』 39, 2001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1933), 박희병 교주, 한길사, 1990
 김행숙, 「이광수의 감정론」, 『상허학보』 33집, 2011

- 대중문학연구회,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 박진영, 「“이수일과 심순애 이야기”의 대중문예적 성격과 계보 - <장한몽>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3집, 2004
- 서영채, 「자기희생의 구조 - 이광수의 『재생』과 오자키 고요의 『금색야차』」, 『민족문화연구』 58호, 2013
- 손유경, 『고통과 동정』, 역사비평사, 2008
- 신봉승, 「역사소설 연구 - 『단종애사』와 『춘원연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오인문, 「신문 연재소설의 변천」, 『관훈저널』 25, 1977
- 유승환, 「이광수의 『춘향』과 조선 국민문학의 기획」, 『민족문학사연구』 56, 2014
-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 2010
- 이선경, 「이광수의 고전 활용법- 허생 이야기 장르 개작 - ‘허생 이야기’의 장르 개작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4집, 2017
- 이지영, 「이광수의 <일설춘향전>에 대한 再考」, 『한국현대문학연구』 49, 2016
- 이혜령, 「正史와 情史사이: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학사연구』 40, 2009
- 임주탁, 「1920년대 초반 소설의 근대적 특성 연구 -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2집, 2006
- 정끝별, 『패러디』, 모악, 2017
- _____,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 정진석, 『언론인 춘원 이광수』, 기과랑, 2017
- 최미진, 임주탁, 「한국 근대소설과 연애담론 - 1920년대 『동아일보』 연재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44집, 2006
- 최주한, 「문화횡단적 경합으로서의 『일설춘향전』 - <춘향전>의 번역과 개작을 둘러싼 문화횡단적 경합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 2016
- _____,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출판, 2014
- 한원영, 『한국 신문연재소설의 사적 연구』 1, 2, 푸른사상, 2010

3. 외국 원서

Franco Moretti, "Evolution World System Weltliteratur", *Distant Reading*,
Verso, 2013

<Abstract>

A Study on Serial Novels of Newspaper of Yi, Kwang-Su in 1920s

Yee, Sun-Kyung

This article focuses on serial novels of Yi, Kwang-Su, which were published in *Dong-A Daily News* in 1920s. Yi started to publish novels serially nine times, but only five of those were completed. Including unfinished works, Yi's novels in 1920s show one of representative model novels of colonial Korean Literature. Yi's novels had developed three stages diachronically in 1920s. Four unfinished works in the early to mid 1920 shows unripe narrator between the journalist and the novelist. As a novelist and journalist of *Dong-A Daily News*, Yi agonized both roles in this period of time. In the early to mid 1920, Yi completed three novels, and all of them were adapted novels using the classics or popular novels at that time. Through borrowing the familiar story, plot and narrative, the writer could express his implied opinions about the colonial era which he was facing. In the late 1920s, Yi wrote two historical novels, *Ma-ui-tae-ja*(Crown Prince Maui) and *Dan-jong-ae-sa*(The Tragedy of King Danjong). These two historical novels completed his archetypal plot in 1920s: the plot about 'ruined nation' and its 'faithful retainer'. It is valuable that his archetypal plot became to extend the one of the model plots of colonial Korean Literature and induce the



mantalité from the Korean people under the colonial Japan.

Key words: Yi, Kwang-Su, 1920s, Serial Novel of Newspaper, Novel, Newspaper, *Dong-A Daily News*, Nationalism, Mantalité

투 고 일 : 2018년 2월 25일 심 사 일 : 2018년 2월 26일-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 2018년 3월 18일